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설교는 본문 중심 강해설교”

목데연 설문조사서 담임목사 60%가 선택...

복음 설교 확대 필요성도 제기

한국교회 담임목사들은 현재 한국교회 강단에 가장 필요한 설교 방식으로 '본문 중심 강해설교'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강단에서 가장 많이 전해지는 설교는 위로와 치유, 격려 중심 설교였지만, 앞으로는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설교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이하 목데연)는 2일 발표한 '한국교회 설교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전국 교회 담임목사 52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설교 방식으로는 '본문 중심 강해설교'가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내러티브식 설교'는 25%, '주제 중심 설교'는 9%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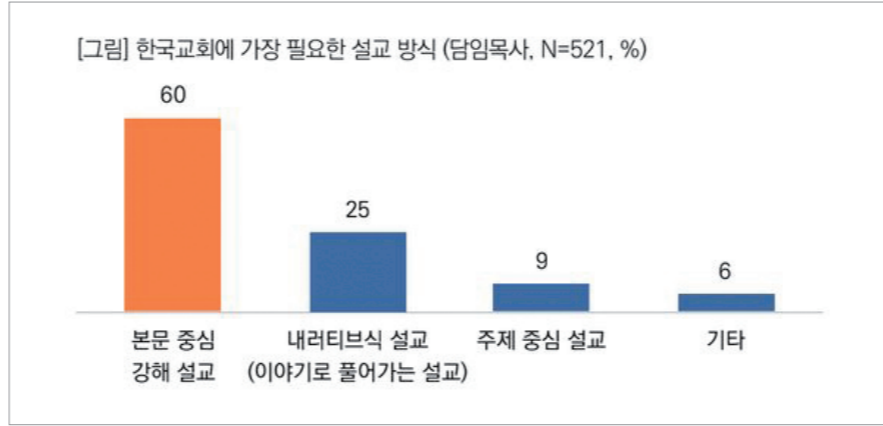
목데연은 이를 두고 "청중의 흥미를 유

발하는 방법론적 접근보다 성경 본문 자체의 메시지와 권위를 회복하는 것을 현 강단의 더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목회자들이 실제로 선호하는 설교 방식에서도 본문 중심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단일 본문 집중 설교'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79%로 '복수 본문 연계 설교'(21%)를 크게 앞섰다. 또한 '원포인트 설교'(58%)가 '다대지 설교'보다 선호됐으며, '귀납적 설교'(70%)가 '연역적 설교'(30%)보다 높은 선택을 받았다.

설교 주제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재 한국교회 강단의 모습과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방향성 사이에 차이가 확인됐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전해지는 설교 주제로는 '위로·치유·격려 설교'가 47%로 가장 높았고, '현실 문제 해결 설교'가 16%로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성도들의 정서적 위로와 삶의 문제 해결에



©목회데이터연구소

초점이 맞춰진 설교가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앞으로 더욱 늘어나야 할 설교 주제를 묻는 질문에는 목회자 61%가 '그리스도 중심 복음 설교'를 선택했다. 현재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위로 설교와 현실 문제 해결 설교는 각각 4%에 머물렀다.

설교 준비 과정에서는 전통적인 연구 자료 활용이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설교 준비 시 활용하는 자료로는 '한글 번역 성경'(89%), 주석책(77%), 사전(73%)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동시에 인공지능(AI) 활용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담임목사의 55%가 설교 준비 과정에서 AI를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40대 이하(59%)와 50대(60%)에서는 10명 중 6명 정도가 AI를 사용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39%로 나타나 세대 간 차이를 보였다.

AI 활용 목회자들은 주로 '설교문 점검보완'(43%), '본문 배경 연구'(35%), '단어·어원 연구'(28%), '설교 아웃라인 제

작'(23%) 등에 AI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교 예화 사용에 대해서는 대다수 목회자가 절제된 활용을 선호했다. 응답자의 88%는 '설교 예화는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예화는 많을수록 좋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다.

예화의 주요 소재는 '개인적 삶의 경험'(47%)이 가장 많았고, 이어 '독서'(35%), '사람들의 일상 관찰 및 이야기'(28%), '시사 뉴스'(21%) 순이었다.

설교에 대한 목회자들의 자가평가에서는 긍정적 요소와 함께 부담감도 확인됐다. '설교 방향에 대해 성도와 리더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응답은 75%였으며, '목회 초기보다 설교 자신감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65%. '설교를 통해 성도들의 실제 신앙 성장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64%였다.

반면 '설교 사역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다'는 응답은 40%. '설교 사역 과정에서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나 목회자 3명 중 1명 이상이 설교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번아웃 경험은 40대 이하 목회자와 쇠퇴하는 교회 목회자들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설교 방향에 대한 신뢰는 출석교인 100명 이상 교회와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들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주일 대예배의 적정 설교 시간은 평균 32분으로 조사됐다. '26-30분'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25분 이하'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65%가 30분 이내 설교를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목회자들이 가장 듣고 싶은 한국의 은퇴 설교자로는 '목회자'가 2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아동·청소년'(11%), '교회 밖 목사'(11%), '박영선 목사'(8%)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듣고 싶은 설교자가 없다'는 응답도 27%로 목회자와 같은 비율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목데연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성경 본문 자체의 권위와 복음을 회복하는 건 강한 설교 사역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은혜로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에게 '나눔과 연보'의 의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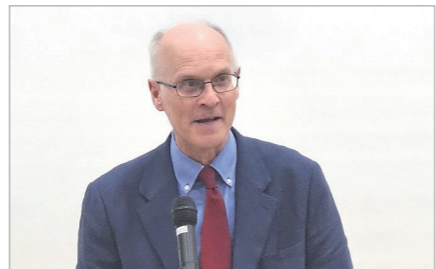
바울 신학 권위자 존 바클레이 英 더럼대 교수, 송실대서 강연

송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장은 최근 세계적 바울 신학 권위자인 존 바클레이(John M. G. Barclay) 영국 더럼(Durham)대 교수를 초청해 '은혜와 기독교 윤리: 바울 신학의 실천적 함의'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존 바클레이 교수는 개신교인들이 이웃을 향한 나눔과 연보(헌금)에 대해 의무감에 그치지나 오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종교개혁 이후 고착화된 신학적 성향을 지적했다.

바클레이 교수는 "개신교 전통이 '행위

구원론에 대한 강박적 공포를 지녔다"며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은 인간의 선행이 구원의 공로가 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고,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의 근원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역사가 역설적으로 구원 이후의 삶에서 '행위와 선행(헌금)의 가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들 강물이 흘러오는 곳을 바라보는 '상류(Upstream)의 신학'이라 지칭하고 싶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근원(상류)만 중요할 뿐, 이웃을 향해 흘러가는 나눔과 선행(하류)은 어떻게 흐르든 무관하다는 인식이 은연중에 퍼졌다"고 했다.

아울러 "헌금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안 해도 그만이라는 도덕적 무관심에 빠지거나, 나눔을 통해 인간의 마음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 새롭게 빛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간과하게 만들었다"며, 그러나 고린도후서 8-9장을 근거로 "바울은 결코 '상류만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바울이 가르친



존 바클레이 교수. ©노형구 기자

참된 연보의 의미는 은혜가 도달할 목적지와 그로 인해 변화될 인간의 미래를 향하는 '하류(Downstream)의 신학'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바클레이 교수는 "이러한 논리를 헌금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인간의 열심은 의미가 없다거나,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내는 것이니 내 공로'라는 식의 제로섬(Zero-sum) 게임에 빠지게 된다"며 "토마스 아퀴나스와 현대 신학자 케서린 테너의 개념을 빌려, 연보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를 '비경쟁적 초월성(Non-competitive Transcendence)'으로 명쾌하게 정리했다.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연보는 100% 하나님의 은혜(Charis)에 의한 결과인 동시에,

100% 인간의 진심 어린 헌신과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는 해석"이라고 했다.

바클레이 교수는 "하나님은 인간의 지분과 경쟁하지는 분이 아니"라며 "오호려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과 부족에 대한 공포에 묶여 있던 인간의 의지를 '해방시켜 자발적으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주체로 만들어 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바울에게 헌금이란 의무나 명령에 마지못해 굴복하는 행위가 아닌, 신성한 은혜의 역동성에 능동적으로 뛰어드는 '참여의 윤리가 된다'며 "기존의 자선(Charity) 모델은 물질을 가진 자가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구조다. 이 구조 안에서 주는 자의 자원은 고갈되고, 받는 자는 무력감을 느끼기 쉽다"고 했다.

그러나 바클레이 교수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연보의 풍성함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는 액수나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플로테스(Haplotēs)'였다"며 "이는 선물이 가진 '순전함'과 '단일한 마음(Single-heartedness)'을 뜻하며, 돈의 액수로 측량할 수 없는 영적인 관대함"이



행사 관계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라고 했다. 아울러 "여기서 기독교 윤리만의 독특한 역설이 발생한다. 신자가 자신의 유한한 자원에서 쪼개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공금원(Surplus) 안에서 베푸는 것"이라며 "물질적 빈곤 속에서도 영적 잉여를 나누는 마케도니아 교회처럼 신자는 부족(Scarcity)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 기만 하는 차가운 금속 파이프가 아니다. 은혜의 강력한 수압(연보의 실천)이 파이프를 통과할 때 파이프 내부에 쌓여 있던 이기심의 녹과 찌꺼기가 씻겨 나가고 파이프 자체가 확장된다"며 "헌금을 드리는 자(Giver)는 자원의 고갈을 겪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내적인 성취와 깊어짐(Enrichment)을 경험하게 된다"

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바클레이 교수는 "우리는 무언가를 더 많이 얻기 위해 서가 아니라, 더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 (to become something more) 심는 것"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바클레이 교수가 제시하는 바울의 윤리 구조는 거대한 '은혜의 순환(Circle of Charis)'으로 요약된다. 은혜는 하나님(상류)으로부터 시작되어 인간의 자발적인 연보를 거쳐, 다시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찬양과 감사(하류)로 돌아가는 구조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 흐름 안에서 신자는 단순히 타인의 유익만을 위해 물질을 소모하고 손해 보는 존재가 아니라 '연보라는 과정을 통해 신자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다가올 영원한 삶에 적합한 존재로 빛어지게 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한국보훈선교단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기도회' 개최 >> 7면

예람위십, 활동 재개 동시
에 '인기 MV TOP 100' >> 24면

액상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 055-286-9004

도료/라텍스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